

A Study on the Orientation for Problems and Support in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조손가족의 문제점과 지원에 대한 정향성 연구

¹ Soo-Jung Cho(조수정), ² Jong-Jin Kim (김종진)

1, First Auth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Korea, Tel: +82-
E-mail: ofsche@naver.com

2, Corresponding Author Visiting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ungwon University, Korea. Tel:
+82-43-830-8222, E-mail: 2001j2k@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6, 2017. Revised: December 10, 2017. Accepted: December 15, 2017.

Abstract

Modern society has become an aging society, and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NSO) expects that Korea will be also an aging society by 2019, that is, people over the age of 65 will account for 14 percent from the total population. In addition, the increase of labor flexibility is also one of the dramatic features in modern society. However, this social shift have unpredictable results, that is, the advent and increase of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Modern medical technology has given Koreans longer expectancies, and structural and economic changes in society have brought early retirement.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increase is below an average of two children per family. There are various services available such as Health support center, Dream start center, Youth support center, Community child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Besides, schools operates various programs for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with social workers and school counselors. But, most of all, what is necessary is a change of perspective on them. Basically, we need to develop a clear perspective on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as a not dismantling family type but alternative family type with creating a separate program or service

Keywords: Aging Society,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Family, Social Shift.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 가정의 유형은 과거에 비해 다양 해졌다. 한부모 가정, 노인 가정, 독신가구, 무자녀 가정, 동거가정, 비동거가정, 동성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빈곤과 실직,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의 과정에서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의 등장은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Ryu & Cho, 2007)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 양육자로서 조부모의 법적 권한도 없다(Kim & Kim, 2004) 다만, 여성가족부가 「2010년 조손가정 실태조사」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손가족이란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 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조손가족으로 규정하였다. 국외에서는 조손가정을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함께 동일한 거주

단위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손자녀의 일상생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합법적인 관계의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Kim & Kim, 2004)

Kim and Jeon (2010)의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1991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보면 조손가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조손가족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생계비와 의료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 현재에도 노인문제를 안고 있는 조부모와 조손 가정에서 자라날 아동과 청소년 인구를 감안할 때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체계적 지원이나 개입의 성격과 내용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조손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문제를 안고 있는 고령의 조부모가 세대차이가 나는 손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조손가족의 문제라는 특수성 있는 문제를 야기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조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파악을 통하여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현황

2.1. 조손가족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조손가정은 IMF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가족해체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유형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손가정 조부모는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거하며, 손자녀의 경제, 사회, 정서, 신체, 교육적 욕구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조부모를 의미한다(Jang & Kwon, 2010).

최근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 미혼모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부모의 별거, 이혼, 취업, 사망 등으로 인해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이 늘고 있다(Jang & Kwon, 2010).

조손가족에서 손자녀의 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의 성을 집계한 결과, 12,750명 중 남성은 17.3%, 여성은 82.7%였고, 이들의 연령은 평균 72.6세였으며, 남성이 73.1세, 여성이 72.5세로 집계 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12,750명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82.3%로 대다수였으며, 중졸 10.0%, 고졸 5.5%이었고, 대졸은 1.3%에 불과하였다. 결국 이들의 낮은 학력은 저소득의 불안정한 직업의 요인이 되었고, 그와 같은 저소득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해, 노년을 준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자녀의 양육까지 맡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조손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은 전국 조손가구 현황을 제시한 것으로 충청북도와 울산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조손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손가구 전체가정수로 보면 1995년 35,194가구, 2000년 44,734가구, 2015년 54,778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Nationwide Grandparent & Grandchildren Family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Households		
	1995	2000	2005
Seoul Special City	3,875	5,224	7,207

Busan Metropolitan City	1,979	2,658	3,771
Daegu Metropolitan City	1,537	2,002	2,685
Incheon Metropolitan City	1,195	1,785	2,426
Gwangju Metropolitan City	984	1,270	1,946
Daejeon Metropolitan City	873	1,086	1,530
Gyeonggi-do	4,352	6,306	9,599
Chungcheongbuk-do	2,147	2,845	2,661
Chungcheongnam-do	1,836	2,299	3,787
Jeollabuk-do	2,611	3,269	3,862
Jeollanam-do	2,654	3,266	4,711
Gyeongsangbuk-do	3,782	4,401	4,655
Gyeongsangnam-do	3,631	4,079	4,349
Ulsan Metropolitan City	438	713	699
Jeju Island	3,300	3,531	890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조손가구 수의 장래 추계를 살펴보면, 가구 수에 있어 1995년 35,362가구였으나, 2015년 152,992가구로 4.3배 증가했으며, 2035년 321,026가구로 2015년 대비 2.1배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유율 면에서도 조손 가구 수는 1995년에 0.27%에 불과 했으나, 2015년 0.81%, 2035년 1.4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Kim et al., 2016.).

<Table 2>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in Grandparent & Grandchildren Family

Category	1995	2005	2015	2025	2035
Total	13,018,256	15,971,010	18,705,004	20,937,339	22,260,603
Grandparenting	35,362	58,058	152,992	231,302	321,026
Ratio	0.27	0.36	0.81	1.10	1.44

unit: %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2).

조손가정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Bae and Jeong(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이혼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자녀의 재혼, 별거, 사별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존의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성인자녀가 더 이상 부모역할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성인자녀의 취업과 사회참여로 인하여 조부모가 일시 혹은 특정시기 까지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구별된다. 앞으로도 급속한 노령화, 이혼율 증가,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는 조손 가족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2.2. 조손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현재 국내에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계는 없으며, 경제적인 공공부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조손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한부모 가족지원법, 보건복지부가족부의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족 아동을 대리양육가정위탁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으며, 비경제적인 지원으로 보건복지부가족부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손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조손가정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기반 서비스로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교사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Jang and Kwon (2010)은 2010년 연구에서 학교는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조손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자녀와 조부모를 위한 개입전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3. 조손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

조손가족은 전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다른 가족 형태와는 구분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조손가족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이 밖에 양육부담과 스트레스, 건강문제, 손자녀 보육문제, 사회적 소외와 지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첫 번째,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국내 조손가정 조부모들의 학력수준은 대부분 무학이며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2; Kim & Kim, 2004b). 직업이 있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나 행상 등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조손가정의 경제력은 열악하다(Kim & Kim, 2004). 또한 조손가정은 명목상 이름만 올린 부모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 보조를 받기도 어렵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판정을 받아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부모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Jeong et al., 2005).

두 번째, 신체적 측면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한 후 일어난 생활변화를 다른 연구들의 대부분은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보고한다(Kwon, 2000). 노년기의 발달 단계적 특성상 체력의 저하와 더불어 육아활동으로 비롯된 건강상의 문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조부모들이 갓난아이를 밤새 돌보고 반항적인 청소년들을 다루기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Cox, 2000; Bae, 2007).

세 번째, 심리적 측면으로는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늦은 시기에 양육이라는 새로운 과업으로 인하여 일반 노인과는 다른 독특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에 감사함과 양육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대체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책임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외로움과 소진감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갈등상태에 놓여 있다(Minkler, Roe, & Price, 1992; Kim, 2005). 손자녀 양육에 책임이 가중될수록 조부모들은 분개, 죄책감, 좌절감, 피로감, 외로움, 덧에 걸린 느낌 등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Jendrek, 1993; Kim, 2005).

네 번째,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가족(2010)부의 조손가족 조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750명 중,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고, 크고 작은 잦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33.1%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73.9%에 달했으며,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16.9%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76.7%, 손자녀의 학업 및 장래에 대한 걱정, 어려움에 53.7%, ‘자신들의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역시 44.8%로 많았다. 이렇듯 조손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윗 세대의 지혜와 연륜을 전수받을 수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손자손녀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과 양육 부담감, 건강 문제 등도 안고 있다.

4. 결론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와 같은 노령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서의 조손가족 생성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서비스의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과거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조기 정년이 강요된다. 또한 평균 출산율 2명 미만의 저출산 상황은 성년이 된 자녀의 분가 후, 노인 부모만을 남기는 노인 가구 형성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결국 노인 가구 비율을 높이게 된다.

한편, 숙명적인 가족관 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행복 추구를 우선시 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노인 가족을 낳고, 세습된 빈곤에 의해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는 자녀들 역시 빈곤으로 인한 이혼에 이르게 되며, 이들의 이혼은 결국 자신들의 노년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자녀의 양육까지 떠맡아야 하는 조손가족을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손가족은 비록 경제적 자활능력을 갖추지 못해 외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지만, 향후 손자녀가 그들의 부모와 재결합 가능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부모들이 손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양육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손자녀의 절반 이상이 조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가족유대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가족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지원 이어야만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부모 가족지원법과는 다른 조손가족 특성에 맞는 “조손가족지원법” 존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본적으로 가족 해체적 지원책이 아닌 가족 유지적 지원책 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행 복지지원체계 속에서도 조손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지원에 따라 가계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일반 저소득층 가구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지원 기준이 아니라, 조손가정이 가족 해체 과정의 일시적 유형이 아니라 대안적 가족유형이라는 점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하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References

Jang, S. O., & Kwon, E. J. (2010). Problems and Interventions for the Family Living in the Care of

- Grandparent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9(1), 351-373.
-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f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 609-621.
- Kim, B. K., Park, M. R., Kwon, B., Kim, D. S., Kim, H. M., & Jeong, S. I. (2016). *Social Problems*. Paju, Korea: Yangseowon.
- Kim, H. S. (2005). A Study on the Emotional Distress of Low Income Custodial Grandparent Raising Grandchildren in Country and City.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8, 341-378.
- Kim, M. H., & Kim, H. S. (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in Low Incom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3), 153-170.
- Kim, W. K., & Jeon, J. A. (2010). Research Trends Concerni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Korean Journals 1991-2010.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5(4), 653-671.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Grandparenting Family Statu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2).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2010-2035).
- Lee, H. J. (2007). A Study on Grandparent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5(4), 315-320.
- Lee, H. Y., Lee, Y. K., & Lee, H. R. (2009). A Study o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from Crisi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port 09-R07. Retrieved May 20, 2017 from <http://lib.nypi.re.kr/pdfs/2009/11.pdf>
-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7). A Study on Grandparenting. *Family and Support Plan Research*.
- Minkler, M., Roe, K. M., & Price, M. (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6), 752-761.
- Ryu, J. J., & Cho, A. M. (2007). Examination of the School Resilience Model among Grandparent Grandchildren Family Adolesc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4(2), 49-69.